

2024년도 제4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사랑의 메<sup>+</sup>아리



교황청 재단



시리아: 유아 세례 예식-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근본 소명에 대해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기본적인 생각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7-18)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세례를 통해 선사하신 새로운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게 됩니다.(필리 3,20 참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만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히브 12,22-23)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골로 3,1)

우리 시대가 직면한 심각한 신앙의 위기는 결국 세례받은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느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임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로마 8,16 이하)

그리스도인의 근본 소명의 두 번째 측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저의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선포하지 못할 때 개인적인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지킬 때 믿음의 기쁨과 신앙의 힘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와 견진 성사는 모든 구원의 선으로 가는 교회의 관문입니다. 세례와 견진 성사에는 영원한 삶이 담겨 있으며,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한 자격도 부여합니다. ACN은 특히 이 신비에 봉사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장려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교리교사 양성을 통해서, 시리아와 레바논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방학 신앙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미디어 활동 수립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증언, 개인적인 헌신과 재능을 통해 인류 구원에 필요한 위대한 하느님의 선물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내며,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e OP*



“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선포할 때, 믿음의 기쁨과 신앙의 힘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소명이 단지 사제직이나 수도 생활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가톨릭 교사나 간호사 또는 정치인까지도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신앙에서 나온 소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가톨릭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 정부에서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 장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과 심지어 박해까지 당하는 곳입니다. 제가 샤바즈를 만난 것은 2005년 10월, 파키스탄 북부에서 끔찍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샤바즈가 파키스탄 주교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샤바즈



가 도운 지진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까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샤바즈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으며, 후에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잘못된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 혐의는 투옥되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샤바즈의 소망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샤바즈는 2011년 3월, 42세의 나이로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시복시성 절차는 2016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 새로운 삶을 얻은 노숙인들!

여러분이 교리 교육 교재비용으로 기부한 52,000,000원으로 노숙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으로 앞으로 4년간 교재를 살 수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베들레헴 선교>의 지암피에트로 카라로 신부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거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진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책 조달에

필요한 여러분의 도움은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 혜택을 약 2,250명이 누리고 있지요. 예수님과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폭력과 중독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특별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서아프리카 베냉에 <주네스 보뇌르> 복음화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행복한 청소년’입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 년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 학교의 교육생들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와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동시에 이 경험을 전달하는 법도 배우지요. 이들은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고, 재조사, 어르신,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일을 통해 일부는 수도나 사제 성소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 가정을 이루거나 교회 일에서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윌프리드는 현재 교회 미디어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데, 최근에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 사목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신앙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윌프리드의 꿈은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제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멋진 한 해를 보냈어요.”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심리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2주 동안 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들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저는 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저 인간성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가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리스텔레(27세)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곳 <주네스 보뇌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텔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돈독히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히 기도하는 게 힘들었으며, 주님이 자신의 고통에 무심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점차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크리스텔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조용히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를 통해 강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제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걸.’ 그래서 제겐 용서하는 일이 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통해 제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제가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복음화학교의 건립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었으며, 올해에도 30,000,000원을 약속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삶을 통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참된 소명을 찾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청소년들: “와서 주님께 환호하세요!” (시편 95.1)

아프리카 교회는 많은 성소로 축복받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예비 사제 3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입니다. 탄자니아의 페라미호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 신학교에서 젊은이 304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크리스산투스(27세)는 부제입니다. 그의 부모는 농부이며, 형제자매는 14명입니다. 가족은 그가 사제가 되는 걸 원치 않았지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의 반대 덕분에 제 성소가 더 강해졌어요. 성소는 아주 소중한 것이어서, 때로는 아주 힘든 시련과 장애물에 직면하기 마련이지요. 좋은 사제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 생각에 사제직은 교회의 신자들이 아직 다 떠나지 못한 신성한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제가 온 세상의 부와 사제서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제직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바라카 요사팍에게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아들을 조부모 집에 맡기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요.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지닌 한 사제가 바라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라카가 조부모에게 사제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조부모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부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학 때 동료들이 부모 집으로 떠날 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바라카는 신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사제가 되고 싶다는 그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요셉, 크리스티안, 엠마누엘은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아들의 성소를 기뻐합니다. 아들을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시편 51.4)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지원하지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신앙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러지도록 돌보십니다. 우리 가족은 제 성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스토어 골리아마 학장이 우리에게 버스 조달 문제로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신학교가 비교적 외진 곳에 있는 데다, 신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여러 본당으로 파견 나갈 때 이용할 차량이 없기 때문이지요. 신학생들은 이곳 본당에서 사제들과 동행하면서 돕고, 종교 지도와 교리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본당 단체와 모임을 합니다. 신학생들은 때로 신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29인승 버스를 위해 여전히 84,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고요한 기도 중에 주님 말씀을 들읍시다.



신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큰 목표를 향해 공부하는 학생들



## 레바논과 멕시코의 양성 교육 레바논에서 온 SOS



마들렌 수녀: 신의와 헌신의 삶

“저는 수도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마들렌 바실 수녀가 고백합니다. 도미니카 수도회 소속의 마들렌 수녀는 베이루트 인근의 고스타에서 30년 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이들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78세의 이 여성 수도자는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주님은 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할 힘이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13세 어린아이가 가족을 부양하려고 몇 센트라도 벌기 위해 일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는 도움이 절실한 가정의 아이들과 고아들이 있어요.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보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녀님,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전 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수녀는 확고하게 말합니다. “수도 생활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급여와 교재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 지원을 통해 레바논에서 가장 가난한 가톨릭 학교 163곳을 지원합니다. 마들렌 수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고스타에 있는 학교에 14,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 이 젊은이들은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멕시코의 칸쿤-체투말교구 신자들은 사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곳에서 사제는 한 명당 9,000명 이상의 신자를 돌봅니다. 지역은 넓고 원주민 대다수는 가난하며,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디에고(21세)는 젊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부 지역 사람들이 사제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디에고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디에고의 동료인 에릭은 가톨릭 청소년 단체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사제가 되고 싶다는 에릭의 말에 어머니는 대답했지요. “너,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일단 에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학업을 끝내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하느님

의 부르심에 에릭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2018년에 에릭은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포레스트(20세)는 13세의 나이에 이미 신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포레스트는 신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공동체, 기도, 학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훌륭하고 거룩한 사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제가 되는 걸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릭, 포레스트, 디에고와 그 밖의 신학생 24명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에도 이들이 학업을 계속하려면 여전히 27,000,000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주변의 이해 부족 가운데서도 사제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



성체성사에서 소명을 위한 힘을 얻는 사람들

## 파키스탄의 여성들

###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40년 전, 착한 목자 수녀회는 파키스탄 북동부의 라호르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24시간 내내 보살핍니다.

학대,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소녀들은 파키스탄 사회와 가족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 수도자들 곁에서 안전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때까지 이곳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리적, 영적 돌봄과 함께, 의료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여성 수도자들이 이들 가족과 논의해서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소녀들은 수공예, 정원일, 요리,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이들은 미래에 도움이 될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감도 얻지요.” 루비 수녀의 설명입니다. “이 여성들의 마음 안에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감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13세인 메랍(가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집에서 지냈습니다. 메랍이 삼촌에게 성폭행당하고 숙모에게 발로 차이고 구타를 당하자, 한 신부가 메랍을 임시 숙소로 보냈습니다. 한번은 숙모가 메랍의 여섯

자신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파키스탄 여성들

살 아래 여동생의 가슴에다 담배를 눌러 끈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녀들은 착한 목자 수녀회의 여성 수도자들 곁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메랍은 벌써 더 나은 미래까지 꿈꾸고 있지요. 메랍이 말합니다. “저와 제 형제자매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소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세인 레시다(가명)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약을 복용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레시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어머니는 레시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28세인 아시아(가명)는 무슬림과 사귀었습니다. 아시아가 임신하자, 남성은 책임지지 않으려 했고, 아시아의 친아버지는 딸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시아 자신이 항상 일해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는데도 말이지요. 이제 아시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시아의 숙모가 라호르로 갈 버스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여성 수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CN은 라호르의 착한 목자 수녀회의 위기 센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다른 여성 수도 공동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에서 보호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하느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두 여성 수도자와 이들이 보호하는 여성들



## 후원자들의 편지



### ACN의 오랜 친구

이 소식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ACN을 만드신 후인 1950년대부터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는 이 기구를 알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이 기구에 대해 잊고 지냈어요. ACN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ACN 관계자 여러분과 활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여성 수도자

###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수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몽포르의 성인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의 성모님 봉헌식에서 저는 가능하면 성모님의 모든 관심사와 세상의 고난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 20단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룩하신 손으로 이 기도의 은총과 열매를 나누어 주길 원하시는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기로 한 것이죠. 비록 제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실직한 상태이지만, 기도의 힘을 깊이 믿고 있기에 지금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의 손을 통해 나오는 기도의 힘을 믿으며, 파티마에서 하신 성모님의 약속에 따라 하느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포르투갈에서 후원자



## 한국지부 소식

##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



전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ACN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CN은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축일에 전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는 고통의 신비를 소개합니다. QR코드로 기도문 신청해주시면 10월 초,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도문 발송해드립니다.



## 2023 연간보고서 발표

ACN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기부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과 다양한 원조 활동에 대한 <2023년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ACN은 138개국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부금 1억 4,370만 유로를 모금했습니다. 이를 통해 5,573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관대한 지원으로 수천 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사목활동과 사도직 활동에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